

토론 : 정보 관련 통계학과의 방향

박노진¹⁾

지난 4월 17일 본인이 재직중인 대전대학교에서 정보 관련 통계학과의 교과과정의 운용 현황과 어려움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있었고, 여러 교수님들께서 우리 나라 통계학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수고에 비해 너무나도 나태해 있던 본인이 토론에 나선다는 것이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대전대학교 통계학과도 정보통계학과로 개명을 하고 교과과정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교과과정을 수정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의 자료로 삼을까 합니다.

1. 정보 통계학과의 교과과정의 한 가지 사례 - 대전대학교의 경우

저희가 교과과정을 개선할 때 생각한 것은 '통계 정보 시스템'이라는 패러다임입니다. 나름대로 그림 1.1 같이 구상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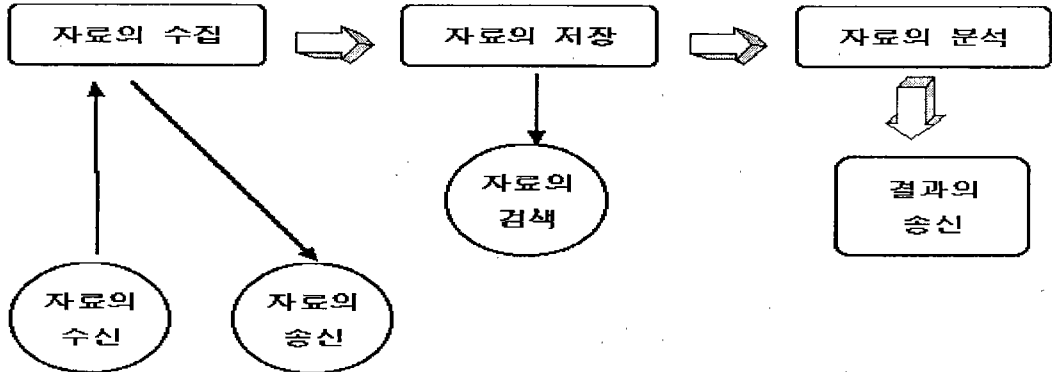


그림 1.1 통계정보시스템

그림 1.1에서 자료의 분석 부분이 지금까지 통계학과에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산 통계 및 실습 (1, 2), 통계 계산 및 실습 (1, 2), 통계 자료 구조, 통계 정보 시스템, 통계 소프트웨어, 데이터마이닝과 같은 과목들이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취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 지향하는 졸업생은 컴퓨터를 잘 다루는 통계전문가 또는 통계를 잘 아는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대학 교육의 실수요자는 기업과 같은 산업 사회의 생산자들과 생각되어, 졸업생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즉시 결과를 생산 해내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

1) (300-716)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대전대학교 정보통계학과, 조교수 (rjpak@dragon.taejon.ac.kr)

다. 정보 통계학으로의 개명은 정보화 사회가 원하는 졸업생을 배출하고자 하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2. 우려되는 사항

이미, 많은 대학에서 위와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시고 계시고, 앞에 있는 논문에서 보듯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제일 먼저 우려되는 것은 우리의 교과과정과 경영정보 또는 산업정보 전공 같은 정보과학 관련 학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데이터마이닝의 대두로 경영정보 계통의 학과에서도 통계학의 필요성을 어느 때 보다 느끼고, 또한 통계학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통계관련 세미나를 요청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통계학의 차별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역시, 차별화는 안으로는 실용적 통계학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밖으로는 통계학의 실용성이 산업전반에서 인정을 받도록 하는 교수님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2). 위의 교과과정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서는 교수진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현재는 위와 같은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보과학 관련 전공자들이 계시지만 통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기존의 교수님들께서 새로운 방향에 지혜롭게 대처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개인적인 생각 - 과연 모든 대학이 정보 통계학을 지향해야 하는가?

저희가 정보통계로 개명을 하게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고 현실적 요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인기 있는 학과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소위 인기가 없다는 학과의 정원 10명을 인기 있다는 학과로 이전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일 년 유보가 되었습니다. 경쟁력 확보라는 학교의 신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취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수의 연구가 수업에서 반영되는 비율이 낮은 교육 중심 또는 취업 중심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UMP-Test, WLLN가 아니라, SAS, C++, CGI 같은 것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데로 하는 것이 꼭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교수님들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듣기 원치 않는 내용을 들으라고 강요할 수만은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적 의미의 통계학이 산업 전반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정보 통계학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통계학 교육은 학문 자체로서 그 이론이 계속 개발되어 그 응용성이 다양하면서 정교화 될 때,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효과를 인정하고,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통계전문가들에게 요구하는 일이 반복될수록 통계학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어질 것입니다. 통계학의 이론과 응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각 대학의 통계학 관련 학과들은 연구 중심, 교육 중심 또는 복합된 형태이든 명확히 방향을 정하여 교과과정을 꾸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Discussion : Statistics toward Information Sciences

Ro Jin Pak¹⁾

ABSTRACT

A lot of the departments of statistics in Korean universities have changed their departmental names into those related with information sciences. The department of statistics in Taejon University also changed its departmental name, since industries are demanding the statisticians with knowledges about information sciences. The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was reorganized as the graduates can immediately satisfy the demand of future employers. However, we believe that there should be some departments of statistics devoting to teach high level of statistical theories and to do researches on statistical theories.

1)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Statistics, Taejon University, Taejon, Korea